

COMMUNICATE

유연하고 열린 소통으로 신뢰하는 조직을 만들자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소통 수단을 만들어냈다. 과거에는 무조건 만나야 소통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소통이 일반적인 시대가 되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온라인 소통이 일상화 되어 있고 미래에는 모든 세대로 확장될 것이다. 온라인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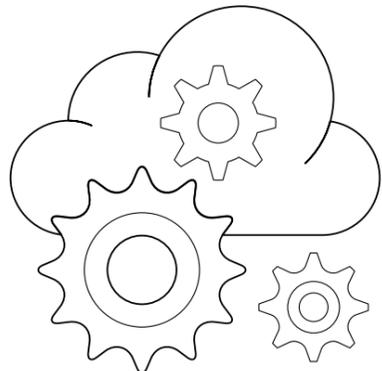
글 유경철(소통과 공감 대표)

01-

소통 채널을 다양화 하라

DIVERSIFY

조직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다. 각기 다른 신념, 가치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방식도 다르고 관계를 맺거나 소통을 하는 방식도 다르다. **소통이 만나서 얼굴보고 이야기 하는 것만은 아님을 이해해야한다. 디지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소통할 수 있다.** 이메일, 사내메신저, 회사웹 같은 공식적인 채널도 있고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같은 사적인 채널도 충분히 소통 수단이 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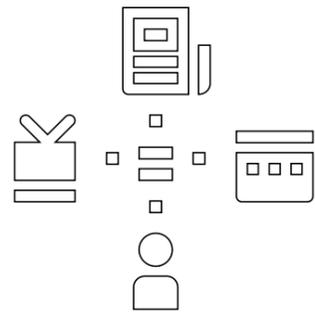
02-

소통 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하라

VARIOUS

온라인 소통 수단은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 웹에 게시판을 만들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투표기능을 통해 개인의 의사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모을 수도 있다.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있는 조직에서는 익명게시판을 만들어 자유롭게 의견이 교환되는 장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온라인 소통 수단의 장점을 이해하자.

수단은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변형시킬 수 있다. 편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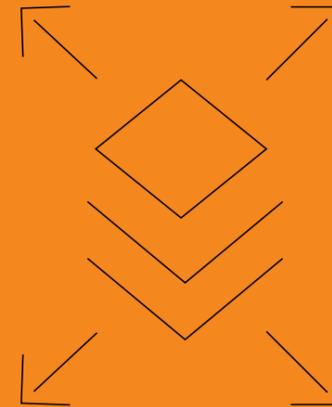
03-

드나들이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만들어라

CREATE

온라인 모임의 장점은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면서 또 쉽게 탈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번 가입하면 탈퇴하기 어려운 기존 오프라인 모임보다 부담감이 적다. 조직 내에서의 소통은 지위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하기 마련이다.

온라인 상에 소통의 장을 만들고 자유롭게 드나들며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해보자. 관계의 연계성 관점에서 너무 쉬운 관계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 수도 있지만 자유롭게 드나들으로써 관계에 대한 유연한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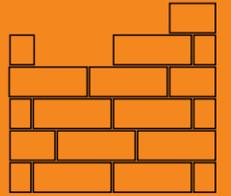
04-

변화에 익숙해져라

CHANGE

조직에서 흔히 발생하는 세대격차는 단순히 나이 차이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기성세대들은 여전히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많거나와 그런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다.

따라서 세상의 변화를 인정하고 스스로 다양한 온라인 수단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익숙한 것에 안주하고, 남들이 맞춰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을 느껴보자.



COMMUNICATE

05-

결국 소통의 핵심은 신뢰

TRUST

디지털시대에 소통의 방식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이다.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면 소통은 깨지게 되어 있다. 빠르고 편하기 때문에 디지털 소통이 좋다고 하지만 서로 신뢰하지 않는 신속함과 편리함은 오히려 소통을 방해할 뿐이다.

다양한 채널을 사용할 때 본인의 모습이 가려져 있더라도 정직하고 진심으로 대화를 하고 서로의 신뢰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